

문예진흥원 30년간 문화예술 어떻게 달라졌나 — 문학편

글_ 이선실 르포라이터

1976년 『문예연감』이 처음 발간된 이래, 문학예술 활동에 대한 많은 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문학은 데이터 산출 방식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분야인데, 그 이유는 다른 장르에 비해 문학 활동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문학계 내에서 문학의 위기설이 대두될 정도로 문학은 사회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90년대 말 정보화 사회 진입은 매체의 변화를 수반하였고, 문학 활동의 창구가 인터넷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장르 분석이나 활동 분석으로는,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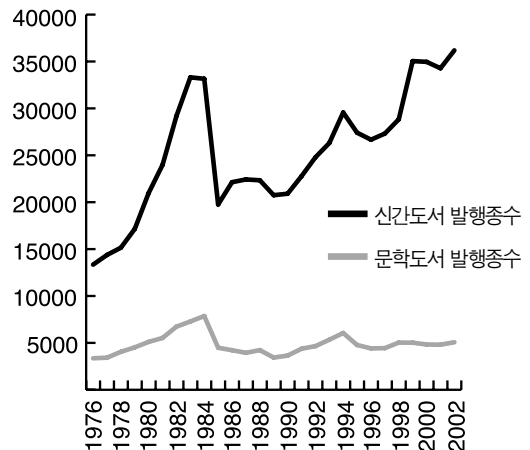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동인지의 분석인데, 동인지의 경우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1996년을 마지막으로 동인지의 분석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1996년 동인지가 700여 종을 넘어서면서 집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PC통신 등을 통한 글쓰기가 이루어지면서 동인 활동이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문학은 『문예연감』을 통해 바라본 문화예술의 30년 변천사에서 가장 변화가 큰 장르였다.

문학 활동은 결과적으로 책의 출판으로 나타난다. 문학도서의 출판 양상이 곧 문학의 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종수의 책이 발간된다는 것은 문학 활동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다. 지난 27년간 신간 발행종수는 <표 1>과 같다. <표 1>의 신간 발행종수는 학습참고서와 만화를 포함한 모든 도서의 신간 발행종수를 의미하며, 문학도서 발행종수는 그 중 문학도서만 따로 집계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 신간 발행종수는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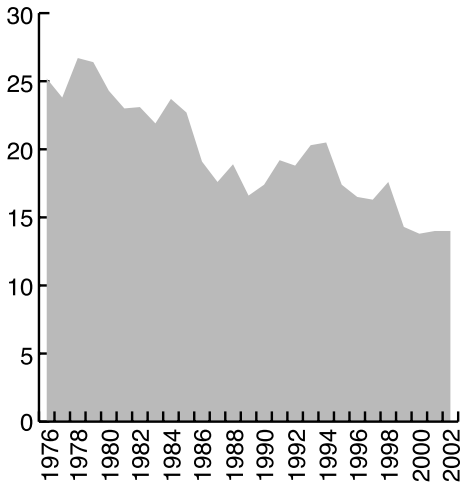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신간도서 발행종수 및 문학도서 발행종수



〈표 1〉 문학도서 신간 발행종수 및 총 비율

연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신간도서 발행종수	13,344	14,375	15,149	17,151	20,985	23,983	29,190	33,311	33,156	19,756	22,132	22,425	22,336	20,745
문학도서 발행종수	3,359	3,421	4,049	4,524	5,107	5,525	6,733	7,282	7,861	4,478	4,219	3,937	4,229	3,435
비율(%)	25.2	23.8	26.7	26.4	24.3	23.0	23.1	21.9	23.7	22.7	19.1	17.6	18.9	16.6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간도서 발행종수	20,903	22,770	24,783	26,304	29,563	27,407	26,664	27,313	28,838	35,044	34,961	34,279	36,186	
문학도서 발행종수	3,646	4,373	4,654	5,336	6,053	4,771	4,411	4,440	5,034	5,020	4,826	4,806	5,067	
비율(%)	17.4	19.2	18.8	20.3	20.5	17.4	16.5	16.3	17.6	14.3	13.8	14.0	14.0	

〈그림 2〉 연도별 총 신간도서 대비 문학도서 신간 발행 비율



년간 세 배 가까이 성장했다. 그러나 문학도서의 신간 발행종수는 큰 변화 없이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도서의 데이터에는 무협지류,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인기물 등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순수문학의 발행종수는 데이터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처음 자료가 집계된, 1976년 총 신간도서의 발행종수는 1만 3,344종으로 출발, 1970년대에는 계속 1만 종대

를 유지하고 있다가 1980년 2만 985종으로 2만 종대를 돌파했고, 1983년에는 3만 종대를 돌파해, 1984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학도서 역시 1984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76년 3,359권으로 집계된 이후, 해마다 증가해 1983년에는 7,282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문예연감』의 데이터는 1984년까지 초판·중판을 합친 종수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초판의 신간 발행종수는 이보다 줄어들 것이다. (중판은 대략 총 신간 발행수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1985년부터는 초판의 신간 발행종수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1985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계가 우리 문학의 양적 발전을 알아볼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척도가 될 것이다.

1985년 신간도서는 모두 1만 9,756종으로 집계되었고, 1986년과 1987년에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1988년과 1989년, 그리고 1990년에는 다시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199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1994년에는 2만 9,563종으로 3만 종 시대를 기대케 했다. 그러나 1995년에 2만 7,407종, 1996년에는 2만 6,664종으로 감소했다. 이후 1997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해 2002년에는 3만 6,186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문학도서는 신간도서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85년 4,478종으로 출발, 소폭의 증감을



〈표 2〉 1985~2002년 문학도서 발행부수

(단위 : 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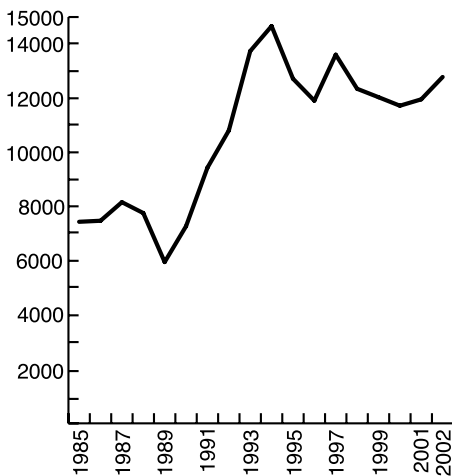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부수	7,441	7,479	8,165	7,763	5,954	7,278	9,438	10,810	13,742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수	14,665	12,724	11,912	13,610	12,351	12,041	11,726	11,962	12,787

〈표 3〉 1985년, 2002년 출판 동향 비교

(1985년 대비 증가율, 단위 : %)

구분	1985		2002	
	전체 도서	문학도서	전체 도서	문학도서
신간 발행종수	19,756	4,478	36,186(83.2)	5,067(13.2)
신간 발행부수	78,469,122	7,440,822	117,499,547(49.7)	12,787,892(71.9)
평균 발행부수	3,407	1,823	3,246(▽4.7)	2,523(38.4)
평균 면수	291	316	247(▽15.1)	279(▽11.7)
평균 정가	4,592	2,910	11,959(160.4)	8,862(204.5)

〈그림 3〉 문학도서 발행부수 연도별 추이



거듭하다가 1994년 6,053종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그 역시 일시적 현상으로 이후 4, 5천 종대에서 증감을 거듭하면서 2002년에는 5,067종으로 집계되었다.

2002년 총 신간 발행종수가 1985년 대비 83.2% 성장한 것에 비해, 문학 신간도서는 불과 13.2%의 성장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총 신간 발행종수에서 문학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985년까지 20%대를 유지해 오던 문학도서의 비중은 1986년 19.1%로 10%대로 내려선 이래 계속 감소해 1989년에는 16.6%까지 감소했다. 이후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1995년에 다시 17.4%로 감소면서 2001년과 2002년에는 14.0%에 불과한 비중을 보였다(〈표 1〉 참조).

문학도서의 신간 발행부수는 〈표 2〉와 같다. 『문예연감』의 출판 통계는 초창기 문학과 달리 ‘문화일반’에서 출판 항목으로 따로 다루어졌다.

1985년 문학도서의 총 발행부수는 744만 1천 부로, 1985년 전체 도서 신간 발행부수 7,846만 9천 부의 1.6%였다. 발행부수는 베스트셀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형 베스트셀러가 있는 해의 발행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변수를 인정하고 보더라도, 1985년부터 문학도서의 출판부수는 1994년까지 증가해, 1,466만 5천 부까지 증가했다가, 1995년에 1,272만 4천 부로 감소해 2002년까지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표 2〉 참조).

『문예연감』에서 출판 집계가 처음 이루어진 1985년과 2002년의 출판 동향은 〈표 3〉과 같다. 신간 발행종수

〈표 4〉 문학도서 장르별 종수

구분	시	소설	수필	평론	기타	계
1989	684	1,756	353	90	552	3,435
1990	657	1,803	447	58	681	3,646
1991						4,373
1992	709	2,715	374	36	820	4,654
1993	841	3,062	514	47	872	5,336
1994	848	3,736	580	26	863	6,053
1995	739	2,973	471	18	570	4,771
1996	661	2,703	445	43	559	4,411
1997	583	2,783	450	32	592	4,440
1998	705	2,920	553	51	805	5,034
1999	605	2,398	563	17	1,437	5,020
2000	565	2,222	562	4	1,473	4,826
2001						4,806
2002	645	1,299	680	302	36	2,962

는 전체 도서가 83.2% 증가한 데 반해, 문학도서의 신간 발행종수는 13.2%에 그쳤다. 그러나 신간 발행부수는 전체 도서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71.9%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1985년 문학도서의 초판 발행이 2천부 정도였던 것이 2002년에는 약 2천~3천 부로 증가했기 때문이다(평균 발행부수 참조). 평균 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문학의 경우, 1985년 316면에서 279면으로 11.7% 감소했다. 반면 도서가는 증가 추세인데, 문학도서의 증가율은 204.5%로 전체 도서의 증가율 160.4%를 크게 웃돌고 있다.

문학도서의 장르별 종수는 〈표 4〉와 같다. 문학도서의 장르별 집계가 이루어진 것은 1989년부터다. 그러나 2001년에는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2년에는 장르별 종수가 2,962건으로 〈표 1〉의 5,067건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 1〉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이 중에는 문학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무협지류와 낙서류, 실용서 및 처세서 등의 도서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분석자가 이러한 도서를 제외한 순수문학으로 구분할 만한 도서들만 따로 집계했기에 생긴 오차다.

1989년에는 소설이 1,756종으로 문학도서 중 51.1%

를 차지해, 신간의 절반 이상이 소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 684종, 19.9%, 전집을 비롯한 기타가 552종으로 집계되었다.

시와 소설은 신간 발행부수가 계속 증가하던 1994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994년 소설은 3,736종이 발간되었고, 시는 848종이 발간되었다. 특이한 것은, 문학평론은 1989년 90종에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수필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0년 562종으로 늘어 시와 비슷한 발행종수를 보였다. 또 무협지, 실용서 등이 제외된 2002년에는 680종으로 23.0%의 비중으로 645종, 21.8%의 시를 앞질렀다.

2002년 집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소설과 전집류를 포함한 기타의 양이 현저히 줄어든 데 비해 시와 수필, 평론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순수문학의 출판 현황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2002년 집계일 수 있다. 2002년 집계에서는 소설은 1,299종으로 전체 문학도서 중 43.9%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가장 많은 발행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수필, 시 순이었다. 평론은 302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이변을 보였는데, 이는 발행종수가 가장 많았던 1989년의 90종에 비해서도 무

〈표 5〉 주요 문학 동인지 시대별 발행종수

구분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6년	1996년
발행종수	25종	40여 종	21종	72종	116종	400여 종	355종	704종

〈표 6〉 주요 문학 동인지 장르별 분포

장르	시	소설	수필	시조	희곡	아동문학	종합	기타	계
1986	133	7	20	18	2	24	151		355
1996	219	10	44	44		42	305	40	704
증가율(%)	64.7	42.9	120.0	144.4	▽100	75.0	102.0	4,000	

〈표 7〉 1976년 문예지 목록

현대문학	소설문예	한국문예
월간문학	충청문예	시와의식
현대시학	소설주니어	내륙문학
시문학	아동문예	동호
수필문학	창작과비평	아동문학평론
문학사상	문학과지성	세계의 문학
심상	시조문학	
한국문학	한국수필	

려 212건, 135.6%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1989년부터 문학도서의 장르별 종수로 살펴본 문학 변화 추이는, 소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금씩 감소세에 있으며, 시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수필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2년에는 시를 추월했다. 평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집계 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또는 문학평론의 활성화의 결과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990년대 중반까지 동인지는 단행본, 문학잡지와 함께 한국 문학을 이끌어가는 3대 축이었다. 동인지 활동은 지면이나 개성의 제한을 비교적 덜 받음으로 인해 중요한 문학 활동의 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PC통신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주요 문학 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다양한 동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1997년 이후로는 더 이상 동인지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1996년까지 동인지의 시대별 발행종수는 〈표 5〉와 같다(1985년 이전 자료는 1985년 『문예연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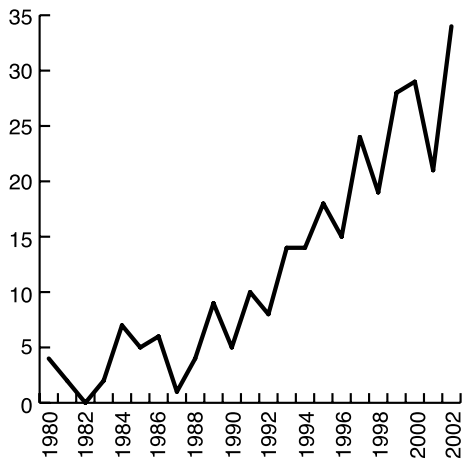
1920년 우리나라의 동인지는 25종이었다. 1935년에는 40여 종으로 증가했지만, 일제 말기와 해방정국의 혼란기에는 21종으로 줄었다. 이후 동인지는 점차 증가해 1970년대까지 400여 종에 이르렀다. 『문예연감』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집계가 이루어진 1986년에는 355종으로 집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집계된 1996년에는 704종으로 나타났다.

주요 문학 동인지의 장르별 분포는 〈표 6〉과 같다. 동인지의 꽃은 시인데, 1986년에는 133종으로 37.5%를 차지했고, 1996년에는 219종으로 31.1%를 차지하고 있다. 1986년에는 시에 이어 아동문학이 24종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지만, 1996년에는 수필과 시조가 44건으로 아동문학을 앞질렀다. 이는 도서 출판에서 수필의 출판 양이 증가한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희곡은 8개 장르

〈표 8〉 2002년 문학잡지 장르별·간별 분포

구분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계
문학종합	21	11	84	9	125
시	6	1	21	2	30
시조			6	2	8
수필	2	2	6		10
소설	1		2	1	4
문학비평	1		5	1	7
아동문학	3	1	2		6
지역문학			5	2	7
종교문학	1		4		5
희곡			1		1
계	35	15	136	17	203

〈그림 4〉 번역 출판 연도별 추이



중 가장 낮은 분포를 차지했는데, 그나마 1986년에 2건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단 한 건도 집계되지 않았다. 소설 역시 희곡과 함께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설이나 희곡의 양적 한계로 인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문학잡지는 문학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장이다. 한국의 문예지는 등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은 문학잡지를 통해 먼저 발표된 뒤 그것을 책으로 묶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자 출판이 늘고, 문예지의 양도 늘어나면서 문예지의 위상이 변하고 있

지만, 문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의 장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1976년 문예지는 총 22종으로 그 목록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2002년에는 모두 203종의 문예지가 집계되었는데, 이는 1976년에 비해 181종이 늘어난 것으로 82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문예지 현황은, 장르별로는 종합이 125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시 30종, 14.8%를 차지했으며, 수필, 시조의 순이었다.

간별로는 계간지가 가장 많아 136종으로 67.0%를 차지했고, 다음 월간 35종, 반년간 17종, 격월간 15종 순이다(〈표 8〉 참조).

한국 문학의 번역 출판은 1980년부터 문예진흥원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1993년부터는 대산재단이 이 사업의 지원에 가담하면서 활발해졌고, 1996년 설립된 한국 번역금고는 한국문학번역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관 주도의 번역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번역 출판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80년 한국 문학의 해외 번역은 4건이었지만, 1981년에는 2건으로 줄어들었고, 1982년에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0건 미만의 번역이 꾸준히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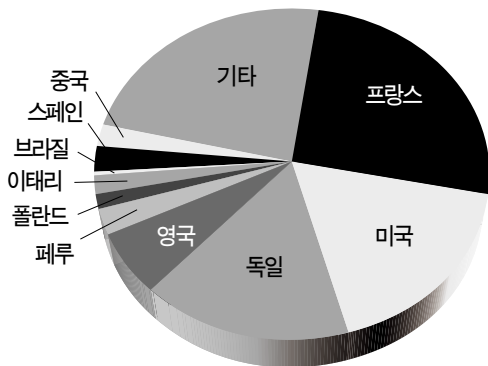
〈표 9〉 한국 문학 번역 작품집 연도별 출판 현황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종수	4	2		2	7	5	6	1	4	9	5	10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종수	8	14	14	18	15	24	19	28	29	21	34	

〈표 10〉 문예진흥원 한국 문학 번역 작품집 국가별 출판 현황

구분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페루	폴란드	이태리	브라질	스페인	중국	기타	계
1980~1995	38	13	12	16			3				27	109
1996	1	3	5		2						4	15
1997	6	7		1		1			1	2	6	24
1998	4	5	2		1		1			2	4	19
1999	6	5	7			1		1	1		7	28
2000	9	1	7		1	2			3	1	5	29
2001	4	3	4		1		1				8	21
2002	4	12	8		2				2	1	5	34
계	72	49	45	17	7	4	5	1	7	6	66	279

〈그림 5〉 한국 문학 번역 작품집 국가별 출판 현황



어제오다가 1991년 10건으로 처음으로 10건대를 기록했다. 1992년에는 8건으로 줄었으나 1996년까지 꾸준히 10건대를 유지하다가 1997년에는 24건으로 처음으로 20건대를 돌파했으며, 2002년에는 34건으로 30건대를 돌파했다.

이러한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은 최근 해외 번역 지원 사업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표 9〉 참조).

한국 문학의 번역 작품집 국가별 출판 현황은 〈표 10〉과 같다. 단일 국가로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한국 문학이 출판되었으며, 다음 미국, 독일의 순이었다. 영국은 1995년까지만 해도 프랑스 다음으로 출판이 활성화됐지만, 1996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 출판되는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특이한 것은 중남미의 페루에서 1997년 이후 꾸준히 출판되면서 7건이 출판된 것이며, 유럽에서는 스페인에서도 활발하게 번역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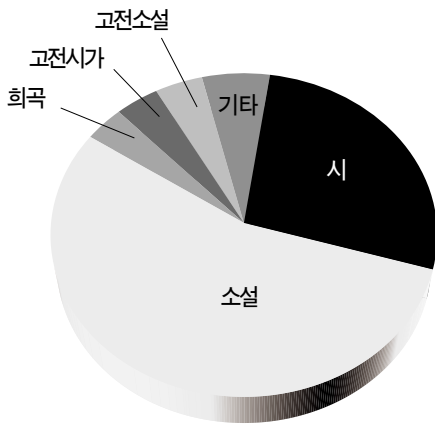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다른 장르의 해외 교류에 비해, 문학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96년 미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가장 근거리인 일본과 중국에서 우리 문학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문학의 해외 번역 작품집 장르별 현황은 〈그림 6〉에서 알 수 있다. 13년간 279건의 번역 출판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소설이 153건으로 54.8%를 차지해 소설 번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현대시로

〈표 11〉 문예진흥원 한국 문학 번역 작품집 장르별 출판 현황

구분	시	소설	희곡	고전시가	고전소설	기타	계
1980~1995	28	67	3	3	4	4	109
1996	7	4	1	1		2	15
1997	8	12	1	1	1	1	24
1998	5	7	1	1	1	4	19
1999	6	17	2		2	1	28
2000	11	11	2		1	4	29
2001	8	10		1	2		21
2002	3	25		4	1	1	34
계	76	153	10	11	12	17	279

〈그림 6〉 한국 문학의 해외 번역 작품집 장르별 출판 현황



76건, 27.2%를 차지했으며, 평론과 한국 문학 이론서인 기타가 17건, 고전소설 12건, 고전시가 11건, 희곡 10건 순이었다.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번역 출판을 진행하고 있고, 문학평론 등 기타 분야는 연도 별로 증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곡은 2001년과 2002년에 단 한 건도 출판되지 않았다(〈표 11〉 참조).

한국 문학은 1976년에 비해서는 양적으로는 다소나

마 성장했지만,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런 위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문학의 위기론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1982년 문인협회의 회원등록 수는 총 1,489명으로 시 590명, 시조 146명, 소설 276명, 아동문학 171명, 수필 129명, 희곡 66명, 평론 84명, 번역 27명이었다.

2002년에는 3대 문인단체(한국문인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 펜클럽)에 등록된 인원만 총 7,38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는 중복 가입된 회원도 있었지만,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문인 수를 감안한다면, 현재 활동 중인 문인 수는 7천여 명 선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982년에 비해 문인 수가 약 다섯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한 해 신간 출판량은 1982년 이후 답보 상태를 유지하면서, 문인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학작품의 양의 위축이 곧 문학의 질적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의 문학적 동향이 양적 위축과 함께 활동 자체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고, 그 결과로 질적 위기에 놓일 것이 우려된다. ☹️